

○ 인사말

천심인 민심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합리적인 상식은 국민들의 씩씩한 여망이자 행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내편-네편의 민심만 있고, 보편타당한 천심인 민심은 설 자리가 좁아만 가는 듯합니다.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대화와 토론으로 찾아내기보다 내편-네편으로 나눠 공격 방어에 열중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대립과 갈등은 일상화되었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렇듯 천심으로서의 민심이 형성되고 표현될 길이 막힌다면 사회통합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국가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치의 지도자들은 내편-네편의 민심이 아니고, 보편타당한 천심인 민심을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옳고 바람직한 내용이면 그것이 천심인 민심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를 아랑곳 하지 않고 내 편만의 이익을 위한 상식과 거리가 먼 모습만 선명해지는 듯합니다. 이제라도 내편-네편을 넘어선 천심으로서의 민심을 잘 읽고 그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종교인·지식인·언론인들 역시 불순분자, 종북, 빨갱이 등의 표현을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대열에 서있기도 합니다. 종교인·지식인·언론인들은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주장을 펼쳐, 건강한 사회 여론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좌우대립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 온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엔 불순분자, 종북, 빨갱이라는 개념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무서운 개념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뜻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나아가 그 어디에서도 그런 발언이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야 책임 있는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정리하는 자리이길 희망합니다. 오늘의 야단법석은 종교인들의 시국발언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이쪽저쪽을 넘어 천심인 민심을 형성하고, 그 민심이 우리 사회의 공론이 되도록 하고자 준비된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차례의 토론으로 모든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차분하게 실상을 드러내고, 차이를 존중하면서 대화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만도 아닙니다. 부디 우리 모두 내편-네편의 울타리에서 나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정한 천심인 민심을 형성하여 그 기운을 정치권과 사회로 확산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 화쟁과 회통의 새 기운을 만들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